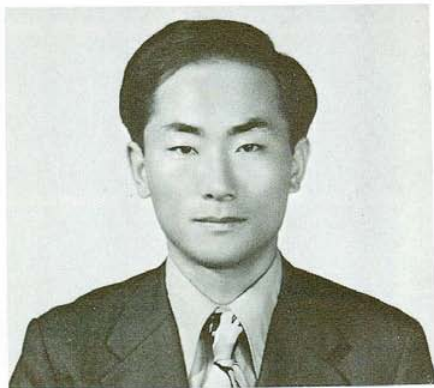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 : 12~17)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단
제1 보좌 김 차 봉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가 쓴 13권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이 위대한 선교사에 의해 크게 자극됩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갈라디아, 브르기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 등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약 23년간 12000 마일 정도의 긴 선교 여정을 가진 바 있습니다.

쥬피터, 제우스, 아폴로, 뷔너스, 아데미 등 많은 우상의 신으로 가득찬 이 넓은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꼭 채웠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학문적, 종교적 훈련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어떤 역경과 환란도 신앙과 패기로 극복했습니다.

그는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의 주위를 밝게 했으며, 해박한 성서의 지식으로 청중의 마음을 깊게 감동시켰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신의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게 했으며, 근면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계 역사와 그리스도교 역사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으며,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학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 준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마나 많은 흑암 속의 인간들이 이 빛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헛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 29 : 14)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도 세상 것만을 아는 인간들에게는 무시되지만 캄캄하고, 막막하던 소경도 눈을 떠 환히 볼 수 있는 희망의 날이 꼭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충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경전의 지식과 건강, 사랑, 온유, 겸손, 인내와 용기, 단결을 열심히 간구하여 이들을 지닌 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같이 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에. 엠. 은. 미. 러. 주.니어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 켈. 서. 더. 블. 유. 킵. 블. 대관장



비. 러. 온. 지. 블. 니. 부. 대. 관. 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 쥘. 라. 미. 러. 프. 트. 미. 언.



마. 크. 이. 피. 러. 스.



엘. 버. 트. 알. 스테. 이. 블. 러.



리. 그. 랜. 드. 리. 차. 즈.



아. 워. 드. 더. 블. 유. 린. 더.



고. 온. 비. 링. 톤. 러.



교회 축복사



엘. 버. 트. 알. 스테. 이. 블. 러.

제 4 와드 청소년 합동 활동

지난 12월 3일, 제 4 와드 아론 신권 및 청년회에서는 "청운의 축삭임"이라는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의 친구와 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김 용일 감독은 아론 신권 및 청년 합동 활동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였고 구 본동 고등 평의원은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다. 활동 순서로 제 1부 "방송제"에서는 교회 소식을 전했고, 제 2부 "예술제"에서는 형제 자매들의 숨은 재능을 발표하였다. 제 3부 "다 함께 노래를"에 이어 공연된 연극 "약속된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김철수 형제가 각색하고 연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구도자에게 "가정의 밤" 교재와 "성도의 빛"을 선물로 주는 추천 순서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복음 선교사들은 미리 마련된 전시장에서 구도자들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말일에 회복된 참된 복음을 전파했다.

상: 예술제에 참여한 제 4 와드 청소년과 역원들.
하: 서 스테이크 웅변대회 유년부 자매 연사.



서울 서 스테이크 웅변 대회

칠십인 정원회 주최 제 1 회 선교 사업을 위한 웅변 대회가 1977년 11월 26일 오후 5시에 서울 서 스테이크 제 2 와드에서 열렸다.

유년 주일 학교에서 5명, 아론 신권 및 청년회에서 7명, 장년 주일학교에서 4명 등 모두 16명의 연사가 출연하여,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회원 선교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유년부에서 나온 김 용란 자매는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다가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라는 어린이 찬송가를 불러서 참석한 성도들을 흐뭇하게 하여 주었고, 중등부에서 나온 신상철 형제는 회원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회원이 쓸쓸하게 성도들을 그리며 세상을 하직하였던 이야기를 내용으로 훌륭한 웅변을 하여 주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칠십인 정원회 회장 신국재 형제는 "더욱 많은 스테이크 선교사가 배출되어서 선교 사업의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 서 스테이크에는 현재 50여 명의 스테이크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다. 이번 웅변 대회의 입상자는 유년 주일 학교에서 1등에 7 와드의 김 용란 자매가 차지했고 2등에 화곡 지부 서 유선 자매, 3등에 수원 지부 목진하 형제가 차지하였으며 중등부에서 1등에 인천 와드 신상철 형제, 2등에 수원 지부 조연숙 자매, 3등에 7 와드 조미영 자매가 차지하였고 성인부에서 1등에 2 와드의 안재엽 형제가, 2등에 2 와드의 이형구 형제가, 3등에 7 와드 이양재 형제가 각각 차지하였다.